

‘일제 침탈사’로 되살리는 식민기 상흔들

정신대문제 계기로 관심 끌어…자료부족으로 책 출간은 적은 편

정신대문제가 한일간의 정치적 사안으로 떠오를 만큼, 연초부터 반세기를 거의 넘기고 있는 일본 식민지시대의 상처가 되살아나고 있다. 비단 정신대문제 뿐 아니라 ‘만행’이라 불릴 것까지 침탈사에 관한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아울러 언론과 일반인들의 관심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전형으로서 현재의 모범 경제대국 일본에 대한 관심의 뒤편으로 밀려, 또한 그 이전에는 해방되지 얼마안돼 성급하게 수습된 한일국교정상화에 묻혀 그동안 방치됐던 일본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관심은 분명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 당시의 실상을 정확하게 증명해줄 관련자료들이 상당 부분 인멸됐을 뿐 아니라 정신대같이 사회통념상 개인의 치부로 돌려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증언이나 기록들은 더욱더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간의 사정은 이러한 만시지탄을 불러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일제 침탈사에 관한 책들을 살펴봐도 저간의 ‘감정적 분노’에 비해 그 근거가 될 자료와 역사학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감정적 분노’에 비해 관련서는 빈약

크게 학술서, 자료집이나 증언록, 논픽션의 성격을 띤 문학작품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 이 책들 중 학술서들은 일제 36년간의 통치정책 변천사를 ‘침탈’과 ‘탄압’에 초점을 맞춰 조명한 역사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학자들의 저술로는 먼저 경제, 언론정책 등 일본의 침략정책을 각 부문별로 살펴본 「일본의 침략정책 연구」(역사학회 엮음, 일조각)와 産米증산계획, 군수공업화정책, 노동력 강제동원책 등 식민지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다룬 「일제하 한국 식민통치」(차기벽 엮음, 정음사)와 같은 논문집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지배정책을 무력지배정책, 민족분열화정책, 병참기지화정책의 3기로 나눠 개괄적으로 서술한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박경식 지음, 청아출판사)나 「민족말살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일제 말기의 조선인 강제연행, 농촌 노동력 수탈상을 살핀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최원규 지음, 청아출판사)는 이 시기의 일반적 통사는 아니지만, 출간 당시 새로운 자료를 적잖이 소개한 연구서에 속한다.

독보적 친일문제 연구로 주목을 받았던故 임종국씨의 일련의 저술들은 특히 자료적 가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일제 침탈사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면, 저간의

‘감정적 분노’에 비해 그 근거가 될

자료와 역사학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의 실상을 정확하게 증명해줄

관련자료들이 상당 부분 인멸됐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경제에 대한

관심 뒤편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최근에는 전집(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도서출판 지리산)으로도 출간되기 시작했다. 그중 일제 침탈사에 관한 대표적인 책으로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I, II」(일월서각)과 「일제하의 사상탄압」(평화출판사)을 들 수 있다. 「일본군의 조선침략사」는 강화도조약 이후 8.15까지 일본 주둔군의 위상변화, 즉 식민정책의 강화에 따라 무력에 의한 실력지배의 양상을 띠게 된 일본군 지배의 실상을 파헤쳤다. 「일제하의 사상탄압」은 조선인의 반제·독립사상 탄압상을 보여주는 책으로 친일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체제와 반체제 사상의 대립 충돌, 갈등을 다뤘다. 사상법규 등 당시 자료가 풍부하게 인용돼 있다.

학술서들과는 달리 자료집이나 증언록, 문학작품들은 정신대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다른 임종국씨의 저작인 「정신대실록」(일월서각)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유일한 정신대 관련 단행본 자료집이었다. 정신대 및 위안소의 실태는 물론 종전 후 그들의 비참한 말로까지 일본과 국내의 각종 자료를 추적해 시기별로 재구성한 이 책은 특히 단행본, 잡지,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망라된 참고목록을 첨가해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정신대」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됐다. 역시 임종국씨의 「일제침략과 친일파적단」(도서출판 지리산)은 만주의 친고파의 실상과 함께 정신대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노무동원, 학도병 등 보다 광범위한 인력수탈상과 일본군의 만행을 다루고 있다.

임종국씨의 책들에 비해 최근 자료들을 중심으로 엮어진 「말살된 묘비-여자정신대」(김문숙 지음, 지평)는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정신대문제를 조명한 최초의 단행본으로 주목



을 받은 책이다. 취재여행기와 자료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쌀이나 의복 같은 군보급품의 일종”으로 치부돼온 정신대의 실상을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 위안부의 증언들과 일본의 정신대 동원명령서 등도 공개돼 있다.

「나는 조선사람을 이렇게 잡아갔다」(요시다 세이지 지음, 현대사연구소 옮김, 창계연구소)는 조선인 동원계획에 참여했던 일본인의 체험기로 ‘노예사냥’으로 불렸던 당시의 강제연행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관계문서와 공식기록은 패전직후 소각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정신대 관련 자료집 이외의 거의 유일한 자료집으로는 농림자원 침탈을 다룬 「일제 농림수탈상」(米畠右 지음, 룩인출판사)이 있다. 문헌자료 중 농림과 수산 관계자료만을 모아 사 진 중심으로 엮어진 점이 특징이다. 백두산 원시림에서의 벌채 사진 등 당시 북한자료들도 많이 공개돼 있는데 1876년에서 1945년까지 전 국토에 걸쳐 행해진 자원 수탈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한편 소설이나 시의 형식을 빌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 책들도 눈에 띈다.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남경대학살 사건을 다룬 「남경대학살」(박옥상 지음, 팔복원)은 소설형식의 보고서다. 중·일전쟁이 진행중이던 1937년 말과 1938년 초에 걸쳐 중국 남경에서 일본군대가 중국양만 30여만명을 학살한 희대의 참극을 조상의 주인공을 등장시켜 재현하면서 2백여점에 이르는 실록화본들을 국내 최초로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자정신대」(허문순 지음, 자유시대사)는 전3권의 장편실화소설로 자칫 포르노그래픽적 에피소

드의 짜깁기로 흐를 수 있는 정신대 소설화의 위험을 극복, 세미다큐멘터리로 구성된 작품.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착한 일본인’과 ‘악한 조선인’을 대비시킨 점도 이채롭다.

한편 밝혀진 자료들과 시인 자신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정신대문제를 다룬 서사시집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장정임 지음, 푸른숲)도 눈길을 끈다. 정신대의 참상 자체에 대한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남성중심주의·가부장제에 대한 문화론적 비판을 통해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할 점이 특징.

계속적 자료발굴과 연구 이뤄져야

연일 신문지상에 관련기사가 실리면서 계속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는 정신대문제는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나온 ‘일본을 배우자’는 목소리와 함께 ‘일본을 바로 알자’는 그동안의 한일관계에 대한 역사적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됐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각종 일본관련서 중 특히 최근의 책들은 거의 일본경제에 집중돼 있고, 과거 일제 식민시대를 다룬 책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신대문제만해도 막상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집이나 연구서는 국민적 관심에 비해 빈약함을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약자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야 했던, 일제침탈사를 포함한 어두운 과거사에 대한 조명도 객관적 역사인식에 필수적 조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묻혀진 사료의 발굴과 그 학문적 천착으로 역사의 골을 메워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로 정신대문제가 새롭게 자리매김돼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정소연 기자